

# Japan Weekly Digest

2012. 5. 5 ~ 2012. 5. 11

① 주간 경제 초점

- 미·일 정상회담 결과

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- 희토류 중국의존, 탈피를 위해 민·관 연대 협력
- 한·중·일 상호인증 확대로 기업비용 절감
- 중국의 인건비 상승, 중국진출 일본기업의 최대 경영 압박요인

③ 일본기업의 협력 동향

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

**한일경제협회**

**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**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 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 
(Tel.02-3014-9888)

## ① 주간 경제 초점 :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와 일본반도체 산업의 재편

### □ 미국 마이크론, 엘피다 인수기업으로 결정

- 히타치제작소 등 일본의 3대 전자메이커들이 포기한 DRAM사업을 인수, 삼성 전자 타도를 목표로 설립된 엘피다가 설립 10년만에 미국 마이크론으로 매각
  - 엘피다는 NEC와 히타치제작소, 미쯔비시전기 등 3개사의 DRAM사업부문을 통합하여 설립
- 리먼 쇼크로 세계 반도체 시장이 냉각되기 시작한 2009년 이후, 마이크론은 엘피다에 자본제휴를 타진해 왔으나 실패, DRAM 개발경쟁에서 탈락
  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당시, 마이크론은 엘피다의 기술을 도입하여 DRAM사업을 부활시키려 했으나, 엘피다는 마이크론과 같이 기술력이 낮은 기업과는 제휴할 수 없었다는 것
  - 2009년 일본정부는 공적자금 300억엔을 엘피다에 투입, 다만 DRAM기업과 제휴함에 따라, 마이크론이 위기에 몰리게 됨. 이 때 엘피다가 마이크론과 제휴를 하였더라면 경영 주도권을 장악했을지도 모름
- 엘피다와 마이크론은 일본과 미국에서 각각 유일한 DRAM 메이커임
  - 벤처기업이었던 마이크론은 미국 TI의 DRAM사업을 인수할 정도도 라이벌들을 제치고 성장해 옴
- 그러나 마이크론과 엘피다는 반도체 성능을 향상시키는 미세기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DRAM기업인 삼성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함
- 엘피다는 성장분야인 휴대전화단말기용 DRAM분야에 뒤늦게 참여했고 후레쉬 메모리시장 진출에도 실패하였음

### □ 1.5배 규모의 차세대메모리 시장을 겨냥

- 마이크론이 엘피다 인수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실용화가 필요한 차세대메모리기술의 확보임
- 메모리반도체 시장규모는 DRAM이 약 4조엔, NAND형 후레쉬메모리가 약 2조엔. 기억용량이 대폭 늘어나게 되는 차세대메모리의 시장규모는 10조엔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
- 차세대반도체를 둘러싸고 반도체메이커들이 다양한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나 마이크론이 전력투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「ReRAM」 기술임
- ReRAM은 NAND형보다 정보해독 속도가 1000배 정도 빠름. 모바일용 DRAM 개발에 뒤늦게 뛰어든 마이크론은 엘피다의 기술이 생존을 위한 마지막 카드가 되는 셈임

## □ 선행주자 삼성을 겨냥한 포위망 구축

- DRAM과 NAND형에서 약 40%의 세계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이미 기억용량이 현재 NAND형의 5배에 가까운 ReRAM개발을 목표로, 2015년 양산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
- DRAM을 대체할 수 있는 MRAM(자기기록식 메모리)를 포함, 모든 형태의 차세대메모리를 1개사에서 개발·생산할 수 있는 것은 삼성뿐임. 마이크론의 엘피다 인수를 계기로 거액의 개발비를 분담, 실용화를 서두르기 위한 제휴가 가속될 가능성이 큼
- NAND형 분야에서 세계 제 2위인 도시바는 메모리카드 분야에서 세계 최대기업인 미국 선디스크와 ReRAM을 개발 중. 오랜 라이벌이었던 한국 SK하이닉스와는 2011년에 NRAM의 공동개발에 제휴
- 전자기기의 두뇌역할을 하는 MPU(초소형연산처리장치)와 메모리를 조합한 반도체를 제조하기 위한 제휴 움직임도 높아지고 있음

## □ 마이크론, 일본 반도체산업의 재편에 촉매역할

-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, 엘피다를 인수한 마이크론은 일본 반도체산업의 재편에 마중물이 될 가능성도 있음
- 반도체 수탁제조분야에서 최대기업인 대만의 TSMC과, PC로부터 휴대폰단말기로의 전환을 서두르는 MPU분야의 최대기업인 인텔 등이 뜨거운 시선을 보내고 있음
- 마이크론은 DRAM분야에서 세계 4위로 3위인 엘피다를 인수함으로써, SK하이닉스를 제치고 2위로 부상함에 따라, 미·일 연합 반도체 기업이 삼성을 추격하는 구도가 되고 있음
- 앞으로 삼성 포위망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, 메모리 이외의 반도체관련 대기업들까지도 가세한 줄 달리기가 시작되고 있음

## ② 산업 및 통상 전략

### □ 민·관 합동 원전 제로 대책

- 경제산업성, 정지중인 일부 원전 재가동에 최우선 목표
  - 원전이 있는 주변 지자체의 반발로 일부 정지중인 원전의 재가동 문제가 5월 중에는 해결될 것 같지 않음
  - 일본정부는 오오이원전 재가동을 최우선 목표로 경제산업성 정무 3역을 파견하여 현지 주민 및 지역의회와 조정 중
- 에다노 경산대신, 계획정전 불가피성 피력
  - 일본정부는 수급검증위원회에서 금년 여름철 전력수급전망을 점검, 관서전력 관내의 경우, 재작년만큼의 더위라면 전력부족율이 15%~16%에 이를 것으로 전망, 에다노 경산대신도 계획정전을 위한 강제조치 필요성에 대해 언급
- 전력회사 간의 전력유통 효과는 한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, 화력발전은 온난화가스 억제흐름에 역행하는 한편, 재생가능에너지는 보급에 시간이 걸림
  - 기대를 모으고 있는 것이 양력발전인데, 야간에 잉여전력을 사용, 뿜어내는 물로 주간 전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임. 그러나 원전재가동이 불가능하면 잉여전력에 의해 물을 뿜어내는 능력도 떨어져 기대했던 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음
- 원전 제로의 장기화 비용
  - 원전제로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(LNG)등의 수입 증가로, 전력회사의 코스트부담이 확대. 일본정부의 시산으로는 2012년도와 2010년도를 비교하면, 관서전력의 연료비가 0.4조엔에서 1조엔으로, 오키나와를 제외한 전력 9개사의 연료비는 3.6조엔~6.3조엔으로 증가
  - 앞으로 적립금 고갈로 코스트 증가분을 모두 전기요금으로 전가시키는 경우, 20%~30%전기요금인상으로 이어지게 됨
- 전력부족의 장기화에 대비한 기업들의 자구책
  - 기업들은 원전 정지에 대비하여 생산 분산, 자가발전에너지 활용, 발광다이오드(LED)등 소비전력이 낮은 기기사용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
  - 일본은 5월까지의 원전이 정지, 특히, 홋카이도와 관서지역 등 여름철 전력부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지역의 기업들이 자구책을 서두르고 있음

## □ 한·중·일 FTA, 금년 중 교섭 개시

-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·중·일 FTA교섭을 연내에 착수기로 합의
  - 이와 관련하여 일본경제신문은 일본측이 ‘즉시 개시’를 주장하였으나, 한국이 한·미FTA에 대한 국내반발 등 신중론을 고려, 연내로 표기기로 합의
  - 한·중·일 경제무역장관 회의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한·중·일 투자협정에도 서명
-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에 대항하여 한·일과 연대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으로 일본경제신문은 보도하고 있음
- 일본은 한·중FTA가 한·중·일FTA보다도 선행하게 된다면, 거대한 중국시장을 놓고 일본기업이 라이벌인 한국기업에 크게 뒤질지 모른다고 우려
  - 따라서 한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, 일본정부로서는 중국과 2국간 FTA 교섭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음
  -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한국을 끌어넣어 교섭과정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양보를 끌어내는 효과를 중시하고 있으며, 당분간은 한·중·일 FTA를 우선시하는 것이 일본정부의 입장

## □ 2011년도 해외직접투자 수익으로 무역적자 보전

- 일본의 2011년도 해외직접투자가 10조 4000억엔으로 3년만에 10조엔을 상회하였고,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
  - 아시아지역의 직접투자액은 3조 1209억엔으로 전체 29.8% 차지(전년비 64%증가)
- 2011년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한 배경은 엔고의 지속, 아시아 시장의 성장 가능성, 유럽의 재정위기 영향에 따른 대유럽투자의 상대적 저하 등을 들 수 있음
- 이에 따라 해외투자수익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보전하는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되며, 직접투자에 따른 자산의 수익성 증대가 향후 과제될 것임

### ③ 일본기업의 협력동향

일본기업	발표일자	업종	대상국가/기업	사업형태/내용
가와사키중공업	2012.5.5	조선	브라질/에스타레로·엔세아다·파라구아스	자본제휴/합작투자(출자비율 30%)자원굴착선 생산
마루베니	2012.5.5	곡물유통	미국/가빌론	직접투자/기업매수(약 3천억엔)
왕자제지	2012.5.8	제지	인도	직접투자/100%출자 현지법인 설립, 골판지상자 생산
모리정기	2012.5.8	기계	중국/천진시	직접투자/40억엔 투자, 공장기계 생산공장 건설
카르비	2012.5.9	식료	미국	직접투자/20억엔 투자, 스낵과자공장 건설
테르모	2012.5.10	의료기기	베트남·필리핀	직접투자/투자규모 150억엔, 하노이, 마닐라에 혈액주사기 생산공장을 증설
아사히카세이메디컬	2012.5.10	의료기기	미국/넥스테지메디컬	자본제휴/ 4% 출자
코니카미놀타	2012.5.10	인쇄	미국/웨딕스	직접투자/웨딕스킹코즈 매수(금액 약 80억엔)
닛산자동차	2012.5.11	자동차	캐나다/매크너인터내셔널	생산제휴/고급차종(인피니티)의 생산위탁
동경공업대학	2012.5.11	태양열발전	중국/사우디아라비아	기술제휴/태양열발전 프로젝트에 참여, 기술제공
J프런트	2012.5.11	유통	중국/상해신세계	업무제휴/신점 상해신세계오오마루에 오오마루라는 이름과 함께 노하우 제공
바로	2012.5.11	식품유통	미국	직접투자/식품조달자회사를 설립
파나소닉	2012.5.11	전기기기	인도/화이아프로시스템즈	직접투자/매수(주식50%이상 취득)

\* 자료: 일본경제신문기사에서 정리

#### ④ 주요 연구보고서 정보

(1) 『동아시아경제통합과 그 이론적 배경』 아시아경제연구소, 5월8일

\*출처: [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Publish/Download/Report/2011/2011\\_106.html](http://www.ide.go.jp/Japanese/Publish/Download/Report/2011/2011_106.html)

(2) 『일본산업의 중기전망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5월8일

\*출처: [http://www.mizuhocbk.co.jp/fin\\_info/industry/sangyou/m1039.html](http://www.mizuhocbk.co.jp/fin_info/industry/sangyou/m1039.html)

(3) 『네트워크 FDI : 일본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서 판매와 원료조달』 경제산업연구소, 5월8일

\*출처: <http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2e027.pdf>

(4) 『지방도시의 기업유치전략에 관한 조사연구』 지방자치연구기구, 5월9일

\*출처: [http://www.rilg.or.jp/004/h23/h23\\_11.pdf](http://www.rilg.or.jp/004/h23/h23_11.pdf)

(5) 『외상투자 산업지도 목록』 JETRO, 5월10일

\*출처: <http://www.jetro.go.jp/world/asia/reports/05001508>

(6) 『중소상업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에 의한 비즈니스모델』 기업공제협회, 5월10일

\*출처:

<http://ri.bmaa.jp/home/zhong-xiao-qi-ye-diao-cha-yan-jiu-bao-gao-shu/xintanacharenjiniyo-rubijinesumoderuno-diao-zha-yan-jiu>

(7) 『신홍국의 시장개척, 성장거점개발 등에 관한 논점 정리: 산업구조심의회 통상정책부회 배포자료』 경제산업성, 5월11일

\*출처: [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3410/015\\_haifu.html](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3410/015_haifu.html)

(8) 『모방대책매뉴얼(중국편, 2012년 3월)』 일본특허청, 5월11일

\*출처: [http://www.jpo.go.jp/torikumi/mohouhin/mohouhin2/manual/pdf/china2012\\_1.pdf](http://www.jpo.go.jp/torikumi/mohouhin/mohouhin2/manual/pdf/china2012_1.pdf)